

읍성축조에 있어서 ‘築城新圖’의 반포 목적과 고고학적 검토*

심 정 보**

〈목 차〉

- I. 머리말
- II. 조선 초기의 읍성축조
- III. ‘築城新圖’ 반포
- IV. 맺음말

국문요약

외침에 대한 우리나라의 역대 방어 전략은 들판의 곡식을 깨끗이 치우고 산성으로 입보하여 적이 지쳐서 물러갈 때를 기다려 공격하는 청야입보(淸野入保) 정책이었다. 이러한 전통적인 청야입보정책에서 연해읍성의 출현은 새로운 방어 전략의 모색이었다. 이는 미처 피하지 못한 백성과 옮기지 못한 가축이나 곡식의 손실에 대한 반성에서 비롯되었다.

읍성의 축성재료 면에서는 석성, 토성, 벽성, 목책도니성, 목책이 다양하게 축조되고 있었으나, 고려시대에는 토성이 보다 많이 축조되고 있었으며, 조선시대 초기만 하더라도 토축과 석축이 병행하여 이루어졌으며, 체성은 도성의 축조기법에 따라 경사면의 내탁부가 이루어지도록 축조하였다. 그런데, 세종 20년에 『축성에 대한 새로운 도본』을 반포하여, 체성을 모두 석재로 쌓도록 하고, 토사로 이루어진 경사면의 내탁부도 석재로 계단을 이루도록 하여, 읍성의 석축화(石築化)가 시행되었다. 또한, 같은 해에 세종은 적대(敵臺), 웅성(甕城), 연대(煙臺)의 도본을 내려 중요 방어시설을 설치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석축화가 이루어진 것은 세종 16년 3월에 최윤덕이 고려 때 모두 흙으로 성을 쌓아 民力만 낭비

* 이 논문은 2011년도 한밭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의 지원을 받았음

** 한밭대학교 교양학부 전임교수

하고도 功이 없었다고 하여 우리나라에는 축성할 石材가 없는 곳이 없으므로 마땅히 石城을 쌓아 영구하게 하자고 거듭 건의한 것이 반영된 것이다.

읍성의 석축화를 위하여 『축성에 대한 새로운 도본』을 반포하여 규식화 한 것은 당시 병조판서였던 황보인의 건의에 의하여 추진되었으며, 도본 작성은 ‘수성전선색(修城典船色)’에서 작성하였다. 그러나, 읍성을 석재로만 축조한 이후 오히려 축성 완료후 단기간에 붕괴되는 현상이 진행되므로 세종 25년에 이보흠이 상소하여 다시 도성 축조기법에 의하여 체성을 축조할 것을 건의하기에 이르렀다.

고고학적으로 웅천읍성 증축과정에서 이러한 변화를 살필 수 있으며, 단종 1년 이후에는 도성축조기법으로 다시 축조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즉 내벽에 석재를 사용하여 계단상으로 축조하였던 등성시설(登城施設)이 토사를 정교하게 다져서 경사면을 이루는 등성시설로 전환하게 된 것이다. 발굴조사 시에 체성의 기저부 조성방법과 수·개축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함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주제어 : 읍성, 입지, 석축화, 축성신도, 체성, 내탁, 치성, 옹성, 해자

I. 머리말

한국에서 읍성의 순수한 개념이 도입된 것은 고려시대 후기라 하겠다. 이 시기에 축조된 읍성은 보다 군사적인 성격을 띠면서 연해안지역부터 축조되는 것이 특징이라 하겠다. 또한, 이 때 축조된 읍성은 주로 왜구의 창궐과 깊은 관련이 있으면서 입지(立地)도 평지에 접근하여 이루어지고 있었다.

『세종실록지리지』에 의하면, 335개소의 행정구역 중 邑城이 수록된 것은 96개소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를 도별로 살펴보면 충청도 15개소, 경상도 27개소, 전라도 20개소, 황해도 4개소, 강원도 6개소, 평안도 16개소, 함길도 8개소이다.

이 중 충청도·경상도·전라도 하삼도(下三道)에 축조된 읍성은 62개소로, 이 숫자를 전체 96개소의 읍성 수에 대비하면 64.6%의 백분율을 나타내는 것이며, 경상도에 축조된 읍성이 27개소로 25.9%로 압도적인 숫자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은 고려 말, 조선 초에 출몰한 왜구에 대비하기 위한 노력의 성과라 하겠다.

또한, 『신증동국여지승람』에서는 330개소의 행정구역 중 읍성이 축조되어 있는 곳이 160개소로 하삼도에는 65개소의 읍성이 수록되어 있는데, 지금의 경상남도와 전라남도에 해당하는 남해와 서해 남부지역에는 52개소의 읍성이 자리잡고 있어 왜구의 침입에 대비할 목적으로 축조되었음을 알 수 있다.¹⁾

조선조 태조(太祖)에서 태종(太宗)대까지의 왜구에 대한 비변책은 산성의 유리함을 내세워 산세가 높고 험한 산성을 중심으로 한 청야입보방책(淸野入保防策)이 계속 유지되고 있었다. 이와 같이 산성으로의 청야입보방책이 주된 전술로 활용되고 있었던 것은 당시 읍성이 수비하기 어렵다는 의논이 지배적이기도 하였지마는,²⁾ 왜구가 내륙까지 침입할 위험성이 인식되고 있었던 상황하에서 우선 산성으로 도피하여 인적·물적 피해를 줄여보고자 하는 소극적인 방어책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겠다.

연해읍성이 왜구방어의 중심에 서게 된 것은 병조판서 최윤덕을 충청·전라·경상도의 도순무사(都巡撫使)로 삼아 3도의 성보(城堡)를 수축하는 방침에 대하여 모두 위임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도순무사가 성터(城基)를 살펴서 정하는 것에서부터 읍성 축조를 감독하는 업무에 이르기까지 전담하는 것을 분수령으로 대왜(對倭) 방어에 본격적으로 대처하게 되면서 부터이다.

1) 심정보, 『韓國 邑城의 研究』, 學研文化社, 1995.

2) 『태종실록』 권13, 7년 1월 갑술조, 『領議政府事成石璘 上書陳時務二十條…負固恃險 不依兵法 擇深阻 築山城 安置老少 收納菽粟 舉烽相應 間道潛通 出其不意 以取勝者 東人之長技也 平地之城 固不可無 然自古東人之善守者鮮 不可專恃邑城』.

읍성축조에 있어서 체성은 도성의 축조기법에 따라 경사면의 내탁부가 이루어지도록 축조하였다. 그런데, 세종 20년에 『축성에 대한 새로운 도본』을 반포하여, 체성을 모두 석재로 쌓도록 하는 새로운 변화가 있게 되었다. 이 『축성에 대한 새로운 도본』에 따르면 외벽뿐만 아니라 토사로 이루어진 경사면의 내탁부도 석재로 계단을 이루도록 하여, 읍성의 석축화(石築化)가 시행된 것이다.

본 고에서는 이 『축성에 대한 새로운 도본』이 있게 된 배경과 파급효과에 대하여 살펴보고 이에 대한 대응책도 검토해 보고자 한다.

II. 조선 초기의 읍성축조

1. 읍성축조의 기본원칙

조선시대의 읍성축조에 있어서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체제하에서 일관되게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갖추게 된 것은 병조판서 崔閔德을 충청·전라·경상도의 도순무사(都巡撫使)로 삼아 3道の 城堡를 수축하는 방침에 대하여 모두 위임하게 되면서이다.

조선시대에는 경기 이북의 도별 도체찰사(都體察使)를 파견하고 있는 경우와는 달리, 世宗代에 최윤덕을 충청·전라·경상도 도순무사(都巡撫使)로 임명한 이후에는 일관되게 충청·전라·경상도 도체찰사, 또는 도순문사(都巡問使)·도순무사라는 직명으로 파견하고 있어 그 직명은 혼용되어 나타나고 있지만 다같이 下三道의 성기(城基)를 심정(審定)하고 감축(監築)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성보(城堡)에 관한 사항을 전담하고 있었다. 당시의 읍성 축조는 전 국력을 기울이다시피 하는 역점사업이었으며, 우선적으로 왜구의 피해가 가장 심하였던 忠淸·全羅·慶尙의 하삼도(下三道)로부터 중점적으로 추진된 것이라 하겠다.

이때 崔閔德은 『各官城子造築條件』³⁾을 마련하여 올렸으니, 최윤덕이 주장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下三道의 각 고을 城子 중에서 방어가 가장 긴요한 연변군현은 山城을 없애고 모두 邑城을 쌓을 것이며, 邑城으로 소용이 없을 듯한 것은 이전대로 山城을 수축하도록 한다.

3) 『세종실록』 권43, 11년 2월 병술조.

- ② 각 고을에서 城을 축조할 때에는 각기 그 부근의 陸地 주현 3·4읍 혹은 5·6읍을 한도로 아울러서 점차로 축조하게 한다.
- ③ 민호의 수가 적고 또 城을 쌓을 수 없는 각 고을은 인근 고을의 城子로 함께 入城토록 한다.
- ④ 각 고을은 사용이 가능한 舊城이 있으면 그대로 수축하고, 사용이 가능한 舊城이 없으면 근처의 새로운 城基를 택하여 축조한다.
- ⑤ 각 고을의 건설하지 못한 城子가 있으면 각기 戶數의 많고 적음에 따라 退築하거나 축소하여 편의에 따라 개축한다.
- ⑥ 각 고을의 城子를 일시에 다 쌓을 수 없으니 각기 城子의 大小를 헤아리고 마땅히 연한을 정하여 건설하게 축조한다.

즉 하삼도의 가장 긴요한 연해읍들은 산성 대신 읍성을 축조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는 것으로, 이에 따라 邑城을 중심으로 하는 입보책을 강구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연해읍성을 축조하게 된 목적은 이제까지 피난을 목적으로 하는 山城에서의 소극적인 방어체계에서 벗어나 연해에서 직접 차단하려는 적극적인 방어체계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하겠다.⁴⁾

그리고, 읍성을 축조할 시에 부근 내륙 주현의 축성군을 동원하여 점차로 축조하되 가능한 한 옛 성을 수축하여 활용토록 하고, 각기 戶數의 많고 적음에 따라 退築하거나 축소하여 편의에 따라 개축하도록 하고 있다. 柳成龍이 “충청도의 경우 곳곳에 축성은 하였으나 어느 곳도 효용성이 없었고, 민정(民丁)을 많이 동원하여 과중한 역사(役事)를 한꺼번에 실시하면서도 축성의 책임자를 얻지 못하여, 성제(城制)의 곡직(曲直)과 산세의 활협(濶狹)에 세심하게 생각지 않은 결과, 축성한지 얼마 되지 않아 곧 무너져서, 民力만 허비하고 마침내 수비할 수 없는 땅이 되었다.”⁵⁾고 개탄하기도 하였지만, 하삼도의 연해읍성은 그 입지조건이나 구조 및 축조공법에 있어서 거의 같은 양상을 띠고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읍성 축조에 있어서 입지조건은 넓고, 평평한 곳과 水泉이 풍부한 곳, 險阻함에 의지하는 곳과 교통이 편리하여야 한 곳, 그리고 경작지가 가깝고 비옥한 곳이 고려되었는데, 이것은 읍성의 축조목적이 「有事 시에는 성문을 굳게 닫고 방어하고, 無事할 시에는 힘껏 들로 나가 밭을 가는 것」이므로, 백성들이 入保하여 오랜기간 머물 수 있으려면, 풍부한 水源과 백성들이 거주하고 官舍 및 창고를 설치할 만한 적당히 넓은 地形이 요구되었던 것이다.

4) 심정보, 앞의 책, 1995.

5) 『懲毖錄』卷15, 軍門謄錄(趙楨基, 「西崖柳成龍의 城墩論」, 『龍巖車文燮教授 華甲紀念論叢 朝鮮時代史研究』, 1989, 13쪽 所收)

실지로 조선조 태조(太祖)에서 태종(太宗)대까지의 왜구에 대한 비변책은 산성의 유리함을 내세워 산세가 높고 험한 산성을 중심으로 한 청야입보방책(淸野入保防策)⁶⁾이 계속 유지되고 있었다. 즉, 『태종실록』8년 3월 을해조에는 知沔州事 李致와 唐津監務 金叔良에게 태형(笞刑) 50대를 때려 還任시키고 있는데, 이는 왜적의 入寇時에 淸野入保하지 않아 적에게 노략질을 당하였기 때문이었다. 그리하여, 태종 10년에는 경상도와 전라도의 諸州山城을 수축하게 되었는데,⁷⁾ 이와 같이 산성으로의 청야입보방책이 주된 전술로 활용되고 있었던 것은 당시 읍성이 수비하기 어렵다는 의논이 지배적이기도 하였지만,⁸⁾ 왜구가 내륙까지 침입할 위험성이 인식되고 있었던 상황 하에서 우선 산성으로 도피하여 인적·물적 피해를 줄여보고자 하는 소극적인 방어책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청야입보방책이 소극적인 방어책의 일환이라고 할지라도 “倭將들이 매번 말하기를 朝鮮이 淸野策으로써 山城으로 들어가 양곡을 옮겨 저장하는 것이 근심거리다”⁹⁾라고 하고 있어, 淸野入保策의 효용성이 여실히 증명되고 있다고 하겠다.¹⁰⁾

그러나, 태종대에는 연해읍성 축조에도 관심을 보여 나주읍성, 보성읍성, 울산군성, 태안읍성, 장사읍성, 강진내상성, 진해읍성이 축조되었으나, 본격적으로 왜구에 대비한 연해읍성의 축조는 세종대에 들어서서야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는 “대저 山城이란 위급한 사태가 있을 때만 쓰고 평상시에는 그다지 쓰지 않는 까닭에 오르내리면서 출입하는 것을 백성들은 모두 싫어하고 꺼리고 있다.”는 황희 등의 논의¹¹⁾에서도 나타나듯이 세종대의 하삼도에 대한 읍성축조는, 백성들의 편의와 왜구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방안으로 입보처의 개념을 산성에서 읍성으로 전환시킨 과감한 결단에서 나온 것이라 하겠다.

2. 고고학적인 조사

읍성의 축조는 조선시대 초기만 하더라도 토축과 석축이 병행하여 이루어

6) 조선초 청야입보방책을 시행하기 위한 산성 축조에 대해서는 차용길의 논고(『朝鮮前期 關防施設의 整備過程』, 『한국사론』7,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1981, 84~86쪽)가 참고된다.

7) 『태종실록』권19, 10년 2월 병인조.

8) 『태종실록』권13, 7년 1월 갑술조, 『領議政府事成石璘 上書陳時務二十條…負固恃險 不依兵法 擇深阻 築山城 安置老少 收納菽粟 舉烽相應 間道潛通 出其不意 以取勝者 東人之長技也 平地之城 固不可無 然自古東人之善守者鮮 不可專恃邑城』.

9) 『선조실록』30년 5월 무신조.

10) 심정보, 앞의 책, 1995.

11) 『세종실록』권82, 20년 9월 신묘조.

졌으며, 체성은 도성의 축조기법에 따라 경사면의 내탁부가 이루어지도록 축조하였다. 이에 대하여 문헌상으로는 세종 25년 11월 겸성균주부(兼成均注簿) 이보흠의 상소문에서 ‘築城新圖’가 반포되기 이전에는 도성 축조기법에 의하여 읍성이 축조되고 있었음이 확인되는데, 발굴조사가 이루어진 읍성 중에서 태종대에 축조가 이루어진 해미읍성에서 그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

1) 한양도성 동벽 발굴조사

한양도성은 태조 4년(1395) 9월 13일에 도성조축도감(都城造築都監)을 설치하고, 태조 5년 1월 9일부터 2월 28일까지 49일간 石城[높이 15尺] 20,250尺, 土城[기저부 너비 24尺, 상부 너비 18尺, 높이 25尺] 43,000尺을 축조하여 63,250尺이 되어 예정보다 3,750尺이 더 길어지게 되었다. 그러나 7월 장마로 무너진 곳이 있어 경상도·전라도·강원도 인구 79,400명을 동원하여 8월 6일부터 9월 24일까지 49일간 2차 공사를 실시하였다.

그 후 부분적으로 퇴락하여 세종 3년(1421) 10월 13일에 도성축조도감(都城修築都監)을 설치하고, 세종 4년 1월 15일에 도성을 수축¹²⁾하기 시작하여 40일 만인 2월 23일에 역사를 마치게 되었다.¹³⁾ 이때는 토성구간도 석축화하여 전면 개축하다시피 하였다.

한양도성에 대한 발굴조사는 중원문화재연구원에 의하여 ‘동대문 디자인플라자&파크 건립부지’관련 동대문축구장부지에 대한 발굴조사 과정에서 동벽 일부와 2간수문 및 치성이 확인되었다.¹⁴⁾ 이구간은 세종연간에 축조한 구간이 비교적 잘 유지되고 있어 한양도성의 축조기법을 파악하기에 용이한 구간이라고 하겠다. 1구간은 이간수문에서 남쪽으로 약 40.4m 구간으로 지름 10cm 내외, 길이 1.5~2m 정도 크기의 목주를 10cm 간격으로 말목지정하고 그 상부에 잡석과 황갈색 사질점토로 정지하여 기저부를 조성한 후 1.2×0.65m 정도의 장대석을 이용하여 지대석을 놓고 그 위에 15~20cm 정도 들어서기단석을 쌓았으며, 상부의 면석은 장방형의 석재를 사용하여 수평줄눈쌓기로 축조하였다. 지대석 전면에는 0.8~1m 크기의 판석형 석재로 박석을 깔았다. 체성의 내벽 적심석은 2단의 구조를 하고 있는데, 기저부 너비는 8.3m 내외이며, 2.2m 정도 높이에서 다시 외벽 쪽으로 1.5~2m 정도 들어서 1.7m 정도 높이로 축조하여 적심석 상부의 너비를 좁혀 4.9m 정도를 나타내고 있다. 체성 내벽을 축조하면서 내부는 판축에 가깝게

12) 『세종실록』15권, 4년 1월 계유조

13) 『세종실록』15권, 4년 2월 경술조

14) 중원문화재연구원, 『동대문역사문화공원부지 발굴조사 동대문운동장유적』, 2011.



사진 1. 한양도성 동벽 적심 및 내탁부(1)



사진 2. 한양도성 동벽 적심 및 내탁부(2)

다져서 경사내탁을 하였다.(사진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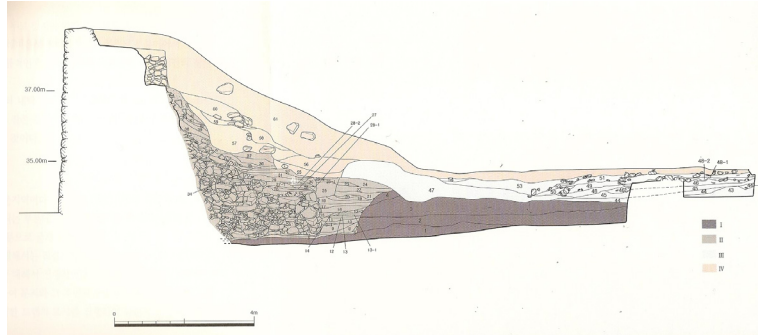
여기에서 다시 남쪽으로 36.5m 구간은 2구간으로 기저부 조성에 있어서 1구간과 다른 점은 말목지정과 잡석다짐을 하지 않고 갈색 사질점토로 정지하고 지대석을 수평으로 놓고 있는 것이다. 체성 적심석 기저부의 너비가 9m 내외이며, 계단상으로 체감하지 않고 기울기만 적용하여 적심석 상부의 너비가 8m를 나타내고 있다. 1구간과 마찬가지로 내벽에서부터 명갈색의 사질토를 정교하게 다져서 경사내탁하였다.(사진 2)

2) 해미읍성 서북벽 절개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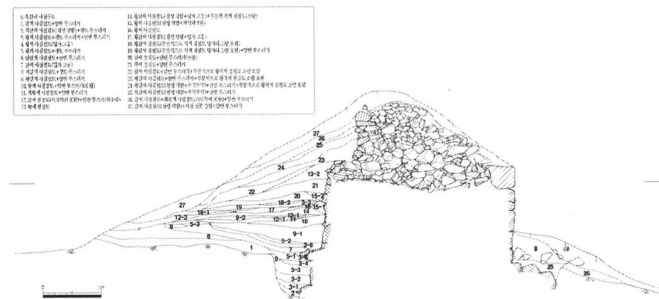
해미읍성 서북벽에 대한 절개조사는 충남역사문화연구원에 의하여 조사가 이루어졌다.¹⁵⁾ 체성 외벽은 생토면까지 굴착하고 지대석 받침을 1~2단 정도 배열하고 장대석으로 지대석을 놓고 그 위에 15~20cm 들여서 장방형 석재를 사용하여 기단석을 놓았으며, 그 상부는 세장방형의 판석형 석재로 수직에 가깝게 축조하여 잔존높이 5.2m를 나타내고 있다. 적심석 기저부 너비는 7.2~7.4m이며, 1.2m 정도 높이에서 외벽쪽으로 1.5m 정도 들여쌓기 하고, 다시 1m 정도 축조하고 외벽쪽으로 들여쌓아 대체로 3단 정도의 계단상을 나타내고 있다. 적심석 상부의 복원 너비는 2.8m이다.(도 1)

한편, 세종 12년에 축조된 보령읍성 체성의 외벽은 지대석에서 15~20cm 들여서 기단석을 놓고, 그 상부에 장방형 석재로 바른층쌓기로 축조하여 그 잔존

¹⁵⁾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해미읍성 9차~12차 발굴조사 종합보고서』, 2009.



도 1. 해미읍성 서북벽 단면도(2009, 보고서 전제)



도 2. 보령읍성 성벽 단면도(서정석, 2011 발표문 전제)

높이가 3.3m 정도인데, 내벽은 너비 4m 정도의 적심석 기저부에서 1m 정도의 높이에서 외벽쪽으로 30cm 정도 들어쌓고, 1.6m 정도 높이에서 다시 40cm 정도 좁혀서 적심석 상부는 3m 정도로 계측되고 있다. 적심석 내벽에 토사를 정교하게 다져서 3.9m 길이로 경사내탁 하였다.¹⁶⁾(도 2)

그리하여, ‘축성신도’ 반포 이전에는 한양도성 축조기법과 유사하게 체성의 외벽은 석재로 축조하고 내벽은 적심석 축조와 동시에 토사를 정교하게 다져서 경사내탁 하여 등성시설로 활용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세종대에 축조가 이루어진 도성과 읍성과의 차이점은 도성이 체성 적심부의 너비가 충실하고 경사내탁부에서 관측기법에 준하여 정교하게 구축한 데 대하여, 읍성에서는 체성 적심부가 상대적으로 빈약하고 경사내탁부의 다짐층이 조금 두텁고 거친면이 관찰된다고 하겠다.

16) 서정석, 『해미읍성 성곽시설의 복원 및 정비 방향』, 『서산 해미읍성의 복원정비와 활용방안(서산시 해미읍성 학술대회)』, 2011.

Ⅲ. ‘축성에 대한 새로운 도본(築城新圖)’ 반포

세종 20년에는 邑城의 석축화(石築化)를 기본으로 한 ‘축성에 대한 새로운 도본(築城新圖)¹⁷⁾을 반포하여 규식화하였으니 이는 전국의 읍성이 일률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뜻한다고 하겠다. 이 ‘築城新圖’는 세종 16년 3월에 최윤덕이 고려 때 모두 흙으로 성을 쌓아 民力만 낭비하고도 功이 없었다고 하여 우리나라에는 축성할 石材가 없는 곳이 없으므로 마땅히 石城을 쌓아 영구하게 하자고 거듭 건의한 것이 반영된 것이다.

1. ‘築城新圖’의 추진

읍성의 석축화를 규식화를 추진한 주체에 대하여 차용걸은 세종 20년에 崔閔德·鄭欽之를 이어 도순무사에 오른 趙末生이 제정하여 시행토록 한 것으로 파악하였으며,¹⁸⁾ 심정보가 이를 인용한 바 있다.¹⁹⁾

이보흠이 무오년(세종 20년)에 ‘축성신도’를 반포하였다는 기사와 관련하여 세종 20년(1438) 1월 15일자 기록을 보면 “의정부에서 병조의 公文에 의거하여 아뢰기를…연변 각 구자에 석보(石堡)를 쌓을 때에도 적대·옹성(甕城) 및 연대의 정한 치수와 양식을 수성전선색(修城典船色)에게 圖本을 그리게 한 다음, 도절제사에게 내려 보내 이를 참고하고 쌓는 것을 감독하도록 하십시오.”하니, 임금이가 그대로 따랐다²⁰⁾고 하였다. 이때에는 읍성뿐만 아니라 석축성을 축조할 시에는 병조에서 건의하여 의정부에서 검토하고 세종의 재가를 받아 채택되어 수성전선색에서 제작한 도본에 의해서 축성토록 한 것이다.

따라서 ‘축성신도’를 추진한 주체는 병조이며, 당시 병조판서는 황보인이 재임하고 있었다. 황보인은 세종 18년(1436) 12월 3일에 병조판서에 제수되어 세종 22년(1440) 8월 12일 한확(韓確)으로 교체될 때까지 병조 업무를 주관하고 있었다. 따라서 ‘축성신도’는 병조판서 황보인의 건의에 의하여 시행된 것임이 자명하다고 하겠다.

한편, ‘축성신도’를 추진하였던 인물로 지목되었던 조말생은 세종 즉위년인

17) 『세종실록』 권102, 25년 11월 갑인조.

18) 차용걸, 『高麗末·朝鮮前期 對倭 關防史研究』, 충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8, 86쪽.

19) 심정보, 앞의 책, 1995, 73~74쪽 주 132.

20) “議政府據兵曹呈啓…沿邊各口子造築石堡時, 敵臺甕城及烟臺見樣, 令修城典船色圖畫, 下送都節制使, 憑考監築。”從之。(『세종실록』 권80, 20년(무오) 1월 경자조).

1418년 8월 27일부터 세종 8년(1426) 3월 4일 김도련(金道鍊)의 노비 24명을 받은 죄에 연루되어 직첩을 박탈될 때까지 장기간 병조판서로 있었으나, 세종 20년 ‘축성신도’를 반포할 당시에는 예문관 대제학(藝文館大提學)²¹⁾으로 제수되어 있어 병조업무에서 벗어나 있었으며, 세종 20년 6월 29일 관중추원사로 제수되어 세종 20년 8월 5일에 경상·전라·충청 삼도 도순문사(三道都巡問使)가 되었기 때문에 세종 20년 1월 15일에 반포되었던 ‘축성신도’와는 무관하다고 하겠다.

2. 修城典船色の 성격

『세종실록』18년(1436) 5월 29일조에는 특이한 기사가 실려 있으니, 병조에서 아뢰기를, “사수색(司水色)을 고쳐 수성전선색(修城典船色)이라 하였으니, 일에 삼가며 부지런한 자 4인을 뽑아 별감(別監)으로 삼고, 겸해서 각 고을의 성 쌓는 일을 맡아 보게 하여, 각도에 나누어 보내서 성 쌓는 일을 감독하도록 항식(恒式)을 삼게 하소서.”하니, 세종이 그대로 따랐다는 것이다. 사수색의 전신은 사수감(司水監)²²⁾으로 전함(戰艦)을 만들며 수리하고, 수송(輸送)에 관한 일을 감독하는 기구였으나, 태종 3년(1403) 6월 29일에 사수감을 사재감(司宰監)²³⁾에 합치게 되면서 사수감 본연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어 전함(戰艦)의 일이 점점 쇠퇴할까 염려되어 세종 14년(1432) 12월 20일에 다시 사수색을 사재감에서 독립시켜 설치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세종 18년에 사수색을 고쳐 수성전선색으로 고치고 4인의 별감을 뽑아 전함에 관한 업무와 성곽 축조에 관한 업무를 병행하게 관장케 한 것이다. 이에 착안하여 이일갑은 신축한 남해안 연해읍성의 평면형태에 있어서 주형이 나타나게 된 연유를 수성전선색에서 축성업무를 관장하여 규칙에 맞는 지형을 심정하여 일관되게 축성사업을 진행시킨 데에 있음을 주장하게 되었다.²⁴⁾

21) 조말생은 세종 19년 12월 1일에 예문관 대제학(藝文館大提學)으로 제수되어 세종 20년 6월 29일 홍여방(洪汝方)으로 교체될 때까지 재임하고 있었다.(『세종실록』 권79, 19년 12월 무오 조 ; 『세종실록』 권81, 20년 6월 신사조).

22) 사수감(司水監)은 전함(戰艦)을 영조(營造)하고 수리하며, 군량을 운반하는 등의 일을 관장하는데, 판사(判事)로부터 녹사(錄事)에 이르기까지 모두 군사감(軍資監)의 예(例)에 따르게 하였다.(『태조실록』 권1, 1년(1392) 7월 정미조).

23) 사재감은 생선, 고기, 소금, 땃나무, 햇불 등을 맡는 기구로 제조는 1명이며, 주부 이상 가운데 1명은 임기가 긴 관리로 두게 하였다.(『경국대전』 권1, 『이전』 경관직조).

24) 이일갑, 『남해안지역 연해읍성의 평면형태에 관한 연구』, 『文物研究』13, 동아시아문물연구학술재단, 2008, 150~151쪽.

그러면 왜 축성업무를 전함업무를 관장하는 기구에 통합하게 된 것일까? 세종 22년(1440) 3월 23일조 기사가 주목된다. 의정부 좌참찬(左參贊) 하연(河演)이 상언(上言)하기를,

호조(戶曹)는 비록 전곡(錢穀)을 맡은 관청이오나, 서무(庶務)가 번극(繁劇)하여 반드시 전심하여 고찰(考察)할 수 없사오니, 청하읍건대, 수성전선색(修城典船色)과 같이 색소(色所)를 설립하고 다른 관원과 호조(戶曹)의 당상 낭청(堂上郎廳)의 실안(實案)을 교대로 임명하여 중외(中外)의 의창(義倉)을 오로지 관장하게 하고, 흑시(或時)는 외방(外方)으로 보내어서 거두고 흠어 주는 상황과 기근(饑饉)의 유무(有無)를 고찰하게 하되, 이제부터 설립하고 위임하여 마감하게 하소서.²⁵⁷

한 데에서 단서를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즉 호조가 전곡을 맡았으나 서무가 많아 번거로워 전심하여 고찰할 수 없으니, 수성전선색과 같이 색소(色所)를 설립하여 中外의 義倉을 오로지 관장하게 하자는 것이다. 이로써 기구명칭에 ‘色’을 사용한 것은 전문기관임을 알 수 있다. 담당분야에만 집중해서 일을 처리할 수 있는 특수기구라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수성전선색은 병조에서 함선이 나 적대·옹성(甕城) 및 연대 등에 대하여 정한 치수와 양식을 도본으로 작성하고, 도본대로 축성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4인의 별감이 각지에 출장가서 지도·감독하는 전문기구라고 하겠다.

세종 23년 8월 수성전선색 별감(別監)을 위의색(威儀色)과 금화도감(禁火都監)의 예에 의하여 병조의 낭청(郎廳) 한 사람으로써 겸임²⁶⁷하게 하였으나, 문종 2년 4월에는 별감 6명 중 2명을 도태²⁷⁷시켜 축소되고 있으며, 세조 7년 이후에는 전선색(典船色)이라는 명칭으로 통용되며 조선(漕船)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다가 전함사(典艦司)로 개칭되어 『경국대전』에 등재되었다.

3. ‘築城新圖’에 대한 검토

‘築城新圖’에 대한 내용은 세종 25년 11월 겸성균주부(兼成均注簿) 이보흠의 그 상소문에 잘 나타나 있다. 이보흠은 근년에 축조한 성이 대개는 모두 무너지고 있음을 거론하고, 그 것은 ‘축성신도’반포이후 그 축성법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상소문 내용을 살펴보면, 『무오년(세종 20년)에 ‘축성신도’를

²⁵⁷ 『세종실록』 권88, 22년 3월 을축조.

²⁶⁷ 『세종실록』 권93, 23년 8월 정해조.

²⁷⁷ 『문종실록』 권13, 2년 4월 병인조.

반포한 이후, 그 축성법이 내면에 석재로 16척을 메우고 위에는 계단을 만들되 박석으로 펴게 한 것은, 오로지 니토(泥土)로만 쌓으면 무너질 것을 염려한 것인데, 석재를 옮기는데 가까우면 10리, 멀면 거의 30리에 달하며, 석성 1척을 쌓는데 6·7명의 役人을 써도 1·2년에 축조를 끝내지 못하며, 비록 끝냈더라도 1년만 넘으면 무너지지 않는 것이 없으니, 萬人이 이 때문에 살 곳을 잃고, 관리가 이 때문에 죄를 얻게 되니 그 폐단의 하나요, 석재를 축조하여 계단을 만들고 박석을 깔면 적을 막을 경우 오르내리며 수비하기에 불편하니 그 폐단의 둘이며, 도적이 틈을 타서 한두 개의 성석(城石)을 공격하면 내면의 잡석이 저절로 무너지게 되니 그 폐단의 셋이요, 성벽 위에 복토(覆土)하지 않아 우수(雨水)가 스며들어 곧 무너지게 되니 그 폐단의 네 가지입니다.』라고 하고 있다.

즉, 체성을 축조하는데 먼저 16척 너비로 기단부를 조성하고 그 상면은 내측에서 계단식으로 축조하여 올라간다는 것이다. 이 것은 泥土로만 쌓으면 무너질 것을 염려한 것인데, 10리 이상의 거리에서 석재를 옮기는 일과 계단식으로 축조하고 박석을 깔았을 시에 오르내리며 수비하기에 불편한 점, 그리고 왜적의 공격시 틈새를 이용하여 한두 개의 면석(面石)을 뽑아내면 내면의 잡석이 저절로 무너질 것이라는 우려와 성벽 상부를 복토하지 않아 물이 스며들어 곧 무너지게 될 것이라는 점 등 4가지 폐단을 들어 이보흙이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16척의 너비로 기저부를 조성하고, 통상의 성벽 높이인 12척을 당시 기준적인 포백척 46.73cm를 적용하여 환산하면, 기저부의 폭은 7.5m이며, 성벽의 높이는 5.6m인데, 성내에서 계단식으로 축조하였을 시에 상부폭이 2m일 경우에는 45°의 경사면을 갖게 되며, 상부폭이 3m일 경우에는 52°의 경사면을 갖게 되기 때문에, 성벽을 오르내리며 수비하기가 불편하다는 것이 입증된다고 하겠다.²⁸⁾

이보흙은 이 때문에 근년에 쌓은 여러 성이 모두 무너졌다고 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제시하고 있다. 즉 내면에 돌을 메워 반드시 넓이를 16척이 되게 한다고 성을 견고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고, 『외면의 6·7척은 대형 석재로 축조하고, 내면의 7·8척은 잡석을 섞어서 흙으로 단단하게 쌓되, 다 쌓은 뒤에는 2척의 두께로 흙을 덮게 하고 그 위에 莎土[떼]를 입히되 안으로 경사지게 하여 물이 빠지기 쉽게 하기를, 도성의 제도와 같이 하면 사람이 오르내리기에 편리하여 적을 제어(制御)하는 공이 있을 것이라 하고, 성을 축조할 때에는 호지(濠池)의 흙을 파서 성의 내면을 메우는 것이니, 파면서 쌓으면 반드시 다시 참호를 공력을 들이지 않아도 되며, 성이 이루어질 때쯤 되면 호지(濠池)도 또한 깊어질

²⁸⁾ 심정보, 앞의 책, 1995, 403쪽.

것이라 하고 있다. 그리고 雨水가 흙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1~2척 깊이에 불과하므로 성체(城體)위에 2~3척의 흙을 덮으면 물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하고, 또한 군위현(軍威縣)을 지킬 때 예전에 축조한 영일성(迎日城) 37척은 9년이나 되었어도 무너지지 않았으나, 성을 쌓는 도본(圖本)을 반포하여 내려 보낸 이후에는 내면에 석재로 메우지 않았다 하여 사토를 버리고 박석을 깔았는데도 하루 아침의 비에 갑자기 무너졌다.』고 하고 있다. 이보흙이 제시한 이 축성법은 都城의 축조방법임을 밝히고 있어 ‘축성신도’를 반포하기 이전에는 지방의 읍성들이 이와 같은 도성의 축조법을 따라 축조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지방의 읍성들은 도성의 축조법에 따라 외면의 2.8m~3.27m는 대형 석재로 축조하고, 내면의 3.27m~3.74m는 잡석과 흙을 섞어서 다지고, 그 상면에는 흙을 2~3척의 두께로 덮고 다시 사토를 입히되 내측으로 경사지게 하여 물이 빠지기 쉽게 축조하였던 것이다.

이와 같은 ‘축성신도’에 따른 폐단은 세종 22년 知中樞院使 成達生의 상소에서 먼저 나타나고 있다. 황해도 도순찰사로 순행한 후 비변책을 올린 성달생은 황해도의 경우에, 『본도 각 고을의 읍성은 내면에 흙을 메우지 않은 곳이 많아 성이 견고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성벽 상부가 험박하여 성을 지키기도 어렵고, 또 성문 안 좌우에는 성에 올라가는 계단이 없어, 성을 지키는 사람이 창졸간에 성에 오르기가 역시 어려우니, 매 1면의 4·5처에 우선 흙계단을 쌓게 하고, 풍년을 기다려 역시 내면에 흙을 메워 쌓아서 수어(守禦)에 편하게 하십시오.』²⁹⁾라고 하고 있다. 이 경우도 ‘축성신도’에 따라 읍성을 축조하다 보니 등성시설이 원활하지 못하여 우선 한 면마다 4·5처에 등성시설로 흙계단을 만들고, 결국에는 체성 내벽에 모두를 흙으로 메워 경사내탁할 것을 건의하고 있다.

또한, 최윤덕은 세종 22년 3월에 上言하여, 野人과 倭奴가 火砲를 사용하지 못하니 瓮城과 敵臺를 없애서 民力을 덜어 연해 군현마다 邑城을 빨리 다 축조하여 위용을 나타내도록 건의하고 있는데,³⁰⁾ 이것은 수성전선색(修城典船色)에서 도본을 그리게 한 ‘축성신도’의 내용 중에 웅성과 적대(치성)도 동시에 축조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으나, 이로 인하여 읍성의 체성축조마저 늦어져 조속한 완축을 기대할 수 없게 되자 우선 체성만이라도 축조하자고 한 것이다. 그리하여, 세종 24년 7월에는 영의정 황희 등 대신들을 불러 국경경비대책을 의논하는데, 各 고을의 城과 甕城·敵臺·池濠를 일시에 만들기는 어려우나 마땅히 점차로 축조하여 나가는 것으로 의견의 일치를 보고 있어, 웅성·적대 및 해자의

29) 『세종실록』 권88, 22년 3월 계축조 지중추원사 성달생의 상소.

30) 『세종실록』 권88, 22년 3월 계묘조.

시설이 규칙화되었음을 알 수 있어 이로써 ‘축성신도’에 의한 석축화 계획이 마무리 되었다고 하겠다.

4. 고고학적인 조사

1) 웅천읍성

웅천읍성은 『경상도속찬지리지』³¹⁾에 세종 16년(1434)에 初築하고 단종 1년(1453)에 增築된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단종실록』의 정분(鄭芬)에 의해 啓請³²⁾된 기사에 의하면 웅천읍성은 세종 19년(1437)에 初築이 완료되었으며, 증축이 이루어진 것은 단종 1년(1453)으로 파악할 수 있다. 그런데, 초축시기의 축성기법과 증축시기의 축성기법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어 ‘축성신도’의 내용과 그 후속조치에 대하여 파악할 수 있는 좋은 사례를 제공하고 있다.

웅천읍성에 대한 고고학적인 조사는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에 의하여, 2001년에 시굴조사³³⁾가 이루어졌으며, 정비복원 사업부지 내에 해당하는 동벽과 남벽의 체성부와 동문지 및 東南城隅·東北雉, 그리고 해자에 대한 발굴조사³⁴⁾가 2007년 9월 14일부터 2008년 8월 31일 까지 이루어지게 되었다.

① 초축시기의 웅천읍성

웅천읍성의 초축시기 규모는 동북벽의 해자가 남진하다가 체성 기저부로 진행되는 것으로 보아(사진 3) 동문지와 서문지를 연결하는 선에서 북쪽으로 구획되는 정방형에 가까운 평면 플랜을 하였을 것으로 파악된다.³⁵⁾(도 3) 문종대 정분에 의하여 하삼도 읍성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질 때 웅천읍성이 누락되어 정확한 규모는 알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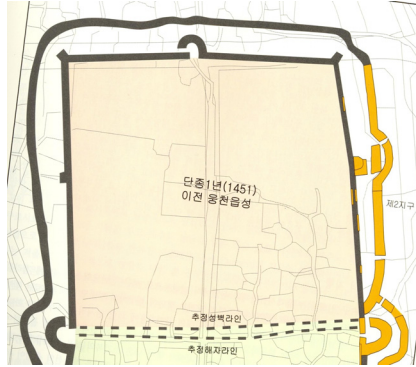
31) 『경상도속찬지리지』경주도 웅천조.

32) 『단종실록』권5, 원년 정월 을축조. “경상도 웅천현(熊川縣)은 정사년에 진(鎭)을 설치하고 절제사(節制使)를 두어 읍성(邑城)을 쌓았는데, 임신년에 진을 고쳐 현(縣)을 두었습니다. 그러나 성안이 좁아서 공해(公廩)와 군영(軍營)을 세울 수가 없고, 게다가 샘물이 적어서 혹시 사변이라도 있으면, 인민들이 입보(入保)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왜인(倭人)이 조석(朝夕)으로 왕래하는 곳이므로 관사(官舍)가 없을 수 없으니, 청컨대 다시 성터를 살피서 가을이 되기를 기다려 증축(增築)토록 하고, 아울러 해안(海子)을 파도록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고 하여 알 수 있다.

33)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鎭海 熊川邑城』, 2001.

34) _____, 『鎭海 熊川邑城II』, 2010.

35) _____, 앞의 보고서, 2010.



도 3. 초축시기의 평면도



사진 3. 동북벽 초축 해자

동북벽에 대한 고고학적인 조사를 통해서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체성 외벽은 수직에 가깝게 축조되었으며 미석이 시설되었고, 체성 높이가 5m 정도로 계측되었다. 내벽은 석재로 계단식으로 축조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내벽의 잔존상태를 살펴보면 생토면을 암갈색과 흑갈색 계열의 점토로 다져 지반을 형성하고 그 위에 45×53cm 내외의 장대석을 이용하여 지대석을 축조한 후 그 위에 자연대석을 이용하여 내벽부를 축조하고 있다. 기저부의 경우 비교

적 대형의 자연관석을 이용하여 축조하고 있으며 상부로 갈수록 그 크기는 작아진다. 현재 확인되는 전체 단은 4단으로 약 2m 내외의 폭으로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최하단 기저부 너비는 약 8m 정도이며, 잔존상태가 불량하나 최상부 너비는 1.3m 내외로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체성 내벽부는 최상부 너비가 1.3m이고 그 하부로 내려가면서 첫 번째 단은 너비 1.4m, 높이 약 3.3m, 두 번째 단은 너비 1.9m, 높이 약 1.8m, 세 번째 단은 너비 1.5m, 높이 1m 내외, 최하단이 너비 1.8m, 높이 0.3m 정도로 총 4개의 단을 이루며 계단상으로 축조되고



도 4. 동북벽 체성 평, 단면도 (2001 보고서 전제)

있다.(도 4, 사진 4)

이것은 세종 16년 최윤덕의 건의로 세종 20년에 반포한 ‘축성신도’에 의한 축성법이 내면에 석재로 16척을 메우고 위에는 계단을 만들되 박석으로 퍼게 한 것과 유사한 형태로 읍성의 석축화가 이미 반영되고 있었음을 볼 수 있는 것이라고 하겠다. 세종 21년에 축조한 면천읍성에서는 체성 내벽에서의 계단식 등성시설은 확연하게 나타나고 있으나,³⁶⁾ 대부분 작은 석재로 축조하여 등성시설로 사용하기에는 부적합함을 볼 수 있다.(사진 5)

또한, 해자가 이미 굴착되어 있었는데, 문종대 경상도 읍성에 대한 일제 점검 시에 그대로 둘 ‘仍舊’ 대상의 읍성이

9개소인데 그 중에서 해자를 굴착한 곳이 김해부읍성, 창원부내상성, 남해현읍성 등 3군데이고, 일부만 굴착한 곳이 곤양군읍성 1군데로 50%에도 미달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예외적이라고 하겠다. 해자 굴착이 규칙화되는 것이 세종 24년임을 감안할 때 웅천읍성 감독관은 성곽 축조술에 상당한 조예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³⁷⁾

이때의 성문은 동·남·북의 3개처에 개설되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동북치성 전면부의 해자 통과선으로 보아 동문에 웅성도 시설할 계획으로 해자선을 변경한 것이 아닌가 한다. 동북치성의 평면도 읍성 내부의 형태와 비슷하다.

②증축 이후의 웅천읍성

단종 1년(1453) 증축 이후 세조 3년(1457)³⁸⁾과 세조 6년(1460)³⁹⁾에 증축 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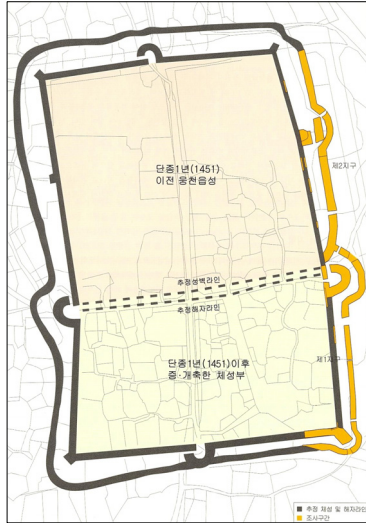
사진 4. 동북벽 체성 내벽



사진 5. 면천읍성 남벽 내벽 등성시설
(충청문화재연구원 제공)

³⁶⁾ 대전산업대학교 향토문화연구소, 『泗川郡城』, 1999. 또한, 충청문화재연구원에서 발굴조사 중인 면천읍성 남벽 내벽에서는 계단상의 등성시설이 확연하게 관찰되고 있다.(보고서 미간행).

³⁷⁾ 심정보, 『朝鮮 前期 郡城의 築造計劃과 熊川郡城에서의 適用事例 檢討』, 『웅천읍성의 역사적 의미와 활용방안(창원시 웅천읍성 학술대회)』, 2011.



도 5. 단종1년 증축이후의 평면도(2010 보고서 전재)

의가 있었으나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중종 4년(1509)에도 응천읍성을 퇴축하여³⁸⁾ 보평 역의 역리(驛吏) 인가도 성중에 들어와서 살도록 하자고 논의하고 있었으나 이루어지는 않은 것 같다. 그리하여, 『신증동국여지승람』이나 『대동지지』에 응천읍성의 둘레를 세조 6년 기사내용과 같이 3,514尺으로 수록하고 있어, 단종 1년에 증축한 규모를 그대로 유지한 것으로 파악된다.⁴¹⁾ 따라서 단종 1년에 증축한 규모가 현재의 장방형 평면형태를 나타내는 것이라 하겠다.(도 5)

증축이후의 변화는 체성 축조에서 나타나고 있다. 초축시기의 체성 내벽은 ‘축성 신도’의 내용과 유사하게 석재로만 계단상을 이루고 있으나, 증축 시의 내벽은 토사를 정교하게 다져서 경사내탁을 하였던 것이 확인된 것이다.

증축된 동남벽 체성의 외벽은 거의 수직에 가깝게 축조하였으며, 기단석 상부에는 인두대 크기의 자연할석으로 쌓고 있으며 점차 위로 갈수록 그 크기가 작아지고 있다. 또한 면석 사이의 틈새는 괴임돌과 췌기돌로 마무리하고 있다.

내벽은 명황갈색점토층 지반위에 구축하였는데, 외벽에서 5.8m 정도까지는 석재로 적심하고, 5.5m 정도 너비는 사질토와 점토, 자갈을 교대로 다져서 경사지게 내탁부를 조성하였는데, (사진 6) 이 공정이 모두 동시에 이루어졌다. 체성 적심부 내벽은 2단 정도의 층단을 이루고 있는데 내벽의 면석은 자연할석을 사용하여 면을 맞추지 않고 바로 토사의 경사내탁과 연결되도록 축조하였다. 체성의 상부 너비는 2.6m이다.

38) 『세조실록』 권6, 3년 1월 갑오조.
 39) 병조에서 경상도 도체찰사의 單子에 의거하여 “都體察使가 熊川城은 둘레가 3,514尺인데, 협소하여서 넓혀 쌓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아직 노약자들을 수용하기에는 부족함이 없으니 어찌 백성들을 노역시켜 넓혀 쌓을 수 있겠습니까. 만일 넓혀 쌓게 되면 더욱 지키기 어렵습니다. 시내와 골짜기가 가까워 적이 무찔러 깨트릴 형세이고, 서쪽으로 확장하게 되면 西山이 가까워 賊이 반드시 여기에 임하여 공격할 것이니 그대로 두는 것만 못합니다.”라고 하니 그대로 따랐다.(『세조실록』 권20, 6년 6월 신해조).
 40) 『중종실록』 권8, 4년 4월 계해조.
 41) 심정보, 앞의 논문, 2011.

즉 단종 1년에 증축한 체성에서는 도성 축조기법과 같이 경사내탁의 축성법으로 변화된 것이다. 따라서 세종 20년에 반포한 ‘축성신도’는 세종 22년의 성달생의 건의와 세종 25년 이보흠의 본래의 읍성축조기법으로 환원하게 되었다고 하겠다. 다만 이 시기의 적심부는 석축화 이전의 적심부 보다는 좀 더 견고하게 축조되었다고 하겠다. 즉, 석축화 이전의 적심부는 빈약한 계단상으로 축조되어 적심부의 상층을 좁히면서 동시에 경사내탁부가 구축되었었는데, ‘축성신도’의 시행착오를 거친 이후의 체성은 적심부가 협축기법에 버금가게 축조되다가 상부에서만 좁혀지는 축성법이 도입되면서 토사로의 경사내탁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라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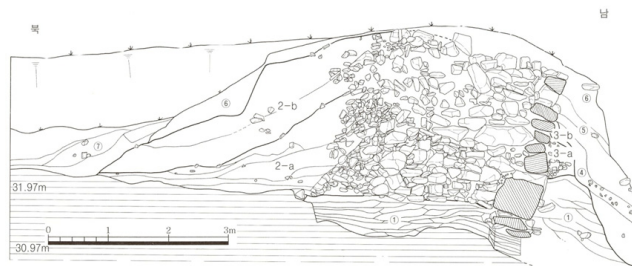


사진 6. 웅천읍성 동남벽 체성 내벽 내탁부

이와 같이 경사내탁하여 등성시설로 활용한 사례는 성종 10년(1479)에 축조한 밀양읍성(도 6)⁴²⁾이나, 연산군 6년(1500)에 축조한 연양읍성 북벽 조사에서도 확인되고 있어(사진 7) 단종 1년 이후에는 다시 도성 축조기법과 유사하게 토사로 다져서 경사내탁한 등성시설로 환원하게 된 것이라 하겠다.



사진 7. 연양읍성 북벽 내벽 내탁부



도 6. 밀양읍성 남벽 단면도(2002 보고서 전제)

⁴²⁾ 밀양대학교박물관, 『밀양읍성 기초자료조사 및 기본설계용역 결과보고서』, 2002.



사진 8. 웅천읍성 동문지 전경



사진 9. 웅천읍성 동남성우 전경

또한, 웅천읍성 동문 웅성(사진 8)과 동남성우(사진 9)는 세종 20년에 ‘축성신도’에 의하여 규격화되고, 세종 24년에 추인된 대로 체성과 동시에 축조되었으며, 해자도 당연히 굴착되었다. 한편, 증축된 체성 및 동남성우와 동문지의 기저부에는 지대석 하부에 상당한 높이로 잡석지정을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것은 생토층이 자갈층으로 나타나고 있듯이 범람지역에 대한 대비가 있었음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하층을 많이 받는 체성 및 동남성우와 동문지 하부의 기저부 조성과정에서 침하를 고려한 잡석지정의 필요성을 인지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중종 5년 왜란 때 “웅천은 들어가서 싸울 땅이 진창이고 험애(險隘)해서 군사를 쓰기가 어렵다.⁴³⁾”고 하고 있고, “웅천 고을은 땅이 낮고 습(濕)하여서 장기(瘴氣)가 아주 심합니다.⁴⁴⁾”라고 하고 있어 뒷받침되고 있다. 이와 같은 지형적인 제약으로 인해서 초축시기의 웅천읍성은 습지를 피하다 보니까 제한적으로 축조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파악된다.

2) 합포 내상성

『세종실록』에 의하면 세종 12년 12월에 도순문사(都巡問使) 최윤덕(崔潤德)이 합포에 성을 쌓았다.⁴⁵⁾고 하고 있으나, 세종 16년 7월에는 경상도의 내상성·영일·곤남성이 5년이 지나도 필축하지 못하였다⁴⁶⁾고 하고 있다. 『동국여지승람』경상도 창원도호부 관방 右道兵馬節度使營條에는 ‘석성(石城)이며, 둘레는 4천 2백 91척, 높이는 15척이다. 영 안에 우물 다섯이 있는데 배극렴(裵克)

43) 『중종실록』권11, 5년 4월 병오조.

44) 『숙종실록』권4, 1년 윤5월 갑진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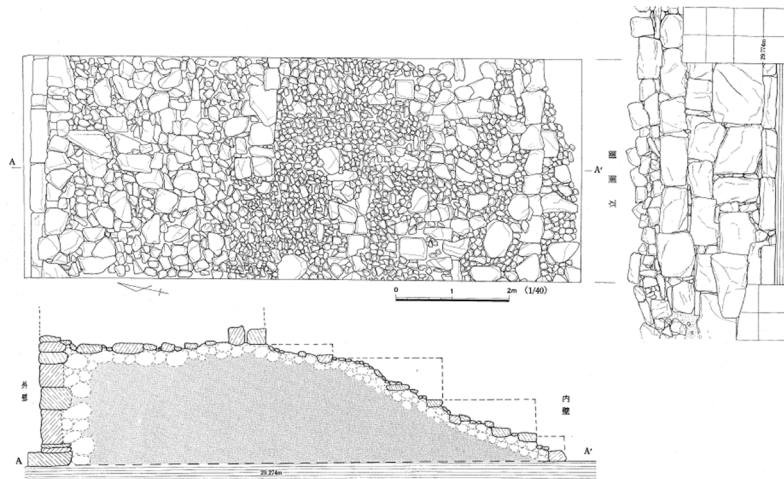
45) 『세종실록』권50, 12년 12월 을미조.

46) 『세종실록』권65, 16년 7월 임인조.

廉)이 쌓은 것이다.'라고 하여 고려 우왕 4년에 배극렴이 축조한 것이라고 명기하고 있다. 그리고 계속되는 이첨(李詹)의 기(記)에도 배극렴이 축조하였음을 밝히고 “성을 흙으로 쌓으면 무너지기 쉽고 벽돌로 쌓으면 공역이 어려우며, 만약 돌로 쌓으면 견고하면서도 공역은 적다하여 드디어 성을 돌로 쌓기로 하였다.”고 하고 있어 우왕 4년에 이미 석축성을 이룬 것을 알 수 있다.

이 합포 내상성에 대한 조사는 1991년 동아대 박물관에 의하여 이루어졌는데,⁴⁷⁾ 보고서 내용 중 '가'Tr. 체성 내벽이 '축성신도'의 내용과 유사한 규모의 계단상으로 축조되어 있어 주목되는 것이다.

'가'Tr. 체성 내외벽 기저부 너비는 8.8m이며, 외벽에서 7.2m, 4m 지점에서 계단상으로 축조하여 상부 너비는 4m에 이르게 된다.(도 7)



도 7. 합포 내상성 '가'Tr. 유구 실측도(1991 보고서 전재)

그러나 '가'Tr. 단면도를 살펴보면, 등성시설로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5~6층의 계단상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를 보면, 세종 12년에 최윤덕이 합포에 성을 쌓았다는 것이 내벽을 석축 계단상의 등성시설로 시공한 것인지, 이미 고려시대 말에 등성시설을 석축의 계단상으로 축조하고 있었던 것을 도성 축조기법과 같이 상부에 토사의 경사내탁을 시행하려다 이루지 못한 것인지는 확실치 않다. 그러나, 세종 이후의 기록에서 고려 우왕 4년에 배극렴에 의하여 이미 석축의 내상성이 축조되었다는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이때 내벽까지도 석축 계단의 등성시설이 구축되어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파악된다. 따라서, 이 합포

47) 동아대학교박물관, 『馬山合浦城址基礎調査報告書』, 1991.

내상성의 石階로 이루어진 내벽 등성시설이 오히려 세종 20년 '축성신도'에 영향을 끼쳐 반영이 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IV. 맺음말

읍성 중심으로 방어체제를 갖추게 된 조선초기의 체성 축조기법은 도성 축조기법에 따라 외벽은 지대석 위에 기단석을 놓고 면석을 수직에 가깝게 축조하고, 내벽은 적심부를 빈약한 계단상으로 축조하여 적심부의 상층을 좁히면서 동시에 토사를 정교하게 다져서 경사내탁부를 이루고 있었다. 그런데, 세종 20년에 '축성신도'를 반포하여 체성 전체를 석축화 하고 옹성과 적대(치성)를 시설하고 해자의 굴착을 규칙화 하여 축성기법에서의 획기적인 변화를 꾀하였다.

'축성신도'는 병조의 건의에 의하여 의정부에서 논의하고 세종의 재가를 받아 시행한 것으로, 당시 병조판서인 황보인이 추진하여 시행된 것임을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축성에 관한 도본을 작성하여 반포한 수성전선색은 병조에서 함선이나 적대·옹성(甕城) 및 연대 등에 대하여 정한 치수와 양식을 도본으로 작성하고, 도본대로 축성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4인의 별감이 각지에 출장가서 지도·감독하는 전문기구라고 하겠다.

그러나, '축성신도' 반포 이후에는 특히 내벽을 계단상으로 조성하여 등성시설로 활용코자 하였는데, '축성신도'의 내용대로 적용해 보면, 16척의 너비로 기저부를 축조하고, 통상의 성벽 높이인 12척을 당시 기준적인 포백척 46.73cm를 적용하여 환산하면, 기저부의 폭은 7.5m이며, 성벽의 높이는 5.6m인데, 내벽을 계단식으로 축조하였을 시에 상부폭이 2m일 경우에는 45°의 경사면을 갖게 되며, 상부폭이 3m일 경우에는 52°의 경사면을 갖게 되기 때문에, 성벽을 오르내리며 수비하기가 매우 불편하다는 것이 입증된다고 하겠다.

이와 같은 '축성신도'에 따른 폐단에 대하여 세종 22년 지중추원사 성달생이 견고하지 못함과 등성시설의 불편함을 지적하고, 세종 25년 11월 겸성균주부 이보흠이 축성 이후 바로 무너짐을 지적하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다시 도성 축조기법으로 환원한 고고학적인 자료가 단종 1년에 남쪽으로 퇴축하여 성내를 넓힌 웅천읍성의 축성구간에서 확인되고 있다. 웅천읍성은 세종 19년에 초축하고, 단종 1년에 대대적으로 증축하였는데, 초축 시기에는 '축성신도'의 내용대로 석축화하여 내벽을 계단상으로 축조하였고, 증축 시에는 토사를 정교하게 다져서 경

사내탁한 것이 모두 확인되어 변화양상을 파악할 수 있다. 즉, 응천읍성에서는 읍성 축조논의에 따른 변화가 충실히 반영되어, ‘축성신도’ 반포 전후의 축성기법이 모두 나타나고 있어 축성사 연구에 많은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아직 읍성에 대한 고고학적인 조사가 미비하여 단정짓기는 어렵지만 조사가 이루어진 성종 10년(1479)에 축조한 밀양읍성 남벽이나, 연산군 6년(1500)에 축조한 언양읍성 북벽 조사에서도 적심부 축조와 동시에 토사를 정교하게 다져서 경사내탁한 것이 모두 확인되고 있어 단종 1년 이후에는 다시 도성 축조기법으로 환원하게 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고 하겠다.

■ 투고일 2012년 8월 16일 | 심사완료일 2012년 8월 30일 | 게재확정일 2012년 9월 3일 ■

참고문헌

<사료>

『高麗史』
『朝鮮王朝實錄』
『新增東國輿地勝覽』
『輿地圖書』
『大東地志』
『懲愆錄』

<국내>

차용걸, 『朝鮮前期 關防施設의 整備過程』 『한국사론』7,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1981.
_____, 『高麗末·朝鮮前期 對倭 關防史研究』, 충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88.
심봉근, 『朝鮮前期 築造 兵營城에 대하여』 『石堂論叢』15, 동아대학교 석당학술원,
1989.
동아대학교박물관, 『馬山合浦城址基礎調査報告書』, 1991.
심봉근, 『韓國南海沿岸城址의 考古學的 研究』, 學研文化社, 1995.
심정보, 『韓國 邑城의 研究』, 學研文化社, 1995.
심봉근, 『朝鮮時代 湖西地方 沿海邑城의 機能에 대한 考察』, 『湖西文化研究』14, 충
북대학교 중원문화연구소, 1996.
나동욱, 『釜山地域의 城址에 關한 檢討』 『博物館研究論集』2,釜山廣域市立博物館,
1998.
대전산업대학교 향토문화연구소, 『沔川邑城』, 學研文化社, 1999.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鎭海 熊川邑城』, 2001.
밀양대학교박물관, 『밀양읍성 기초자료조사 및 기본설계용역 결과보고서』, 2002.
동아대학교박물관, 『彦陽邑城 綜合整備復元을 위한 學術調査報告書』, 2003.
이일갑, 『慶南地域 沿海邑城에 대한 研究』, 東亞大學校 博士學位論文, 2007.
_____, 『남해안지역 연해읍성의 평면형태에 관한 연구』, 『文物研究』13, 동아시아
문물연구학술재단, 2008.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해미읍성 9차~12차 발굴조사 종합보고서』, 2009.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鎭海 熊川邑城Ⅱ』, 2010.

- 중원문화재연구원, 『동대문역사문화공원부지 발굴조사 동대문운동장유적』, 2011.
- 서정석, 『해미읍성 성곽시설의 복원 및 정비 방향』, 『서산 해미읍성의 복원정비와 활용방안(서산시 해미읍성 학술대회)』, 2011.
- 심정보, 『朝鮮 前期 邑城의 築造計劃과 熊川邑城에서의 適用事例 檢討』, 『웅천읍성의 역사적 의미와 활용방안(창원시 웅천읍성 학술대회)』, 2011.
- _____, 『朝鮮時代 邑城의 築造와 沔川邑城』 『면천읍성 연구』, 충남역사문화연구원, 2011.

Abstract

Purpose of Publishing New Guidelines on Fortress Construction for Walled Cities during the Joseon Dynasty and Archaeological Research on the Guidelines

Sim, Jeong-Bo

Throughout history, Korea's defense strategy against foreign invasion consisted in clearing the field and entering the fortress. To be more specific, Korean ancestors first removed all crops from the field and entered the fortress. They then waited until the enemies grew tired and began to withdraw. It was at that moment that Koreans started attacking them. Considering such a traditional policy of "clearing the field and entering the fortress," construction of Yeonhae Walled City meant searching for a new defense strategy. That was because it was lamentable to lose people, livestock and crops that had still remained in the field.

For a walled city, a variety of fortresses were constructed and the examples are stone fortress, earthen fortress, walled fortress and fortress composed of a wooden barricade and mud. During the Goryeo Dynasty, earthen fortresses were the most common. On the other hand, at the beginning of the Joseon Dynasty, both earth and stone were used and the inner part of the incline in the fortress body was built according to the construction technique used for the capital. However, during the 20th year of King Sejong, the Korean government published The New Guidelines on Fortress Construction. These guidelines were mainly about recommending masonry for walled cities. For example, all fortress bodies had to be built with stone and the inner parts of inclines made of earth and sand had to have a staircase made of stone. In the same year, King Sejong ordered construction of major defense facilities, providing

guidelines on outer wall, outwork and storage. Stone fortresses came to be built following Choi Yun-deok's suggestion in March of the 16th year of King Sejong. At that time, Choi constantly argued for constructing stone fortresses. To elaborate on his position, he pointed out that during the Goryeo Dynasty, all fortresses had been made of earth and that it had been just a waste of human resources because these fortresses had been useless. He also added that since stone is everywhere in Korea, it must be used to construct fortresses so that they can be used permanently.

Following the advice of Hwang Bo-in, then Minister of War, *The New Guidelines on Fortress Construction* were published and stone became the official material of walled cities. The guidelines were drawn up by an organization called Sujseongjeonseonsaek.

However, using only stone for walled cities resulted in collapse shortly after the completion of a fortress. That is why during the 25th year of King Sejong, Lee Bo-heum asked the government to respect again the construction technique used for the capital to construct fortress bodies.

Archaeological research allows these changes to be observed in the process of extending Ungcheon Walled City. Such research also makes clear that after the first year of King Danjong, the construction technique of the capital was used again. In other words, before this period, a stone staircase was built on the inner wall of a fortress while later on, an incline made of dense earth and sand was used instead. This explains why during excavation, it is important to study how the foundation of a fortress body was built and to see if construction and reconstruction were carried out.

Key Words : walled city, geographical conditions, masonry, The New Guidelines on Fortress Construction, fortress body, inner part, outer wall, outwork, moat

